

재점검의 달

믿음성장과 신앙성숙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순종이 어려운건
 내가 너무 많아서는
 아닐까?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성령님의 역사가 감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9)



선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June 5, 12:30 p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 / 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김훈태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출애굽기 11:1-10 하나님과 동행하면?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헌 / 나눔)	봉 헌 / 최선운 집사, 박진성 집사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1, *4절
살과 세상으로	* 찬 송 - 620장 / 여기에 모인 우리 *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찬양과 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골로새서 4:2-18

청지기의 자세 - 깨어 기도하기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6월은 “재점검의 달”입니다.

2022년 후반기를 준비하며 말씀과 기도예 더욱 힘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시다.

- 2022년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열왕기하 2:9)
건강한 성장, 풍성한 열매, 더 많은 나눔을 추구하는 교회
- 금주는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믿음의 성장과 신앙생활의 성숙을 추구하는 주간입니다.
- 오순절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며, 성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주일 오전11시-11시 45분)
말씀과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모두 참여합시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7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믿음의 뿌리내리기
 - 1) 기도운동 오순절의 성령충만과 복음의 능력을 위해
 - 2)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결단
- 야외예배(6/19) 함께 준비합니다.

▶ 6월의 사역 - 믿음성장과 신앙성숙 주간(5-11) 소금과 빛된 주간(12-18)
야외예배(19) 선교주간(19-22) 선교주일(23)
상반기 결산 주간(23-7/2)

♥ 6월 생일축하 ♥ 김영은(8) 오승국(15) 이정연(24)

기도제목

1. COVID-19의 휴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우를 위해
2. 가정의 안전이 위협받은 교우의 평안과 위로를 위해
3. 이사하는 가정을 위해
4.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자녀와 각 자녀의 유익한 방학을 위해
5. Youth 사역(Joint ministry)의 성장과 2세 사역자 청빙을 위해

예배섬김이

주일예배기도	6/5	6/12	6/19	6/26
	김훈태집사	구은강집사	최선윤집사	최내권집사
주일헌금위원	6/5	6/12	6/19	6/26
	최선윤집사/박진성집사		구 민집사/오정은집사	
주일안내위원	6월			
	김훈태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타협이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 출애굽기 10:7-28

아홉 가지 재앙을 겪으며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권능도 보았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신 하나님과 흥정하고 타협하려 했다. 자신의 양보 만큼 하나님도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만연하다.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 내리거나, 혹은 자신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영적 교만에 비롯한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중 최고의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필요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한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지 하나님과의 타협하는 일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올바른 삶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 출애굽기 11:1-10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뜻과 계획을 들으면, 큰 유익을 얻는다.

첫째, 위로와 격려가 된다.

둘째,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된다.

셋째, 준비하며 순종하게 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헤매는 어리석은 인생을 중단해야 한다. 걱정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자.

하나님과 동행하면? / 출애굽기 11:1-10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인생'을 말하며 미래를 염려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평안과 담대함으로 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실패나 좌절 앞에 낙망할 수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결과를 미리 알려주시며, 확신과 담대함을 주셨다. 열 번째 마지막 재앙 후,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허락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지불되지 않던 품삯을 지불한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그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나?

첫째, 하나님의 배려이다. 마지막 재앙의 결과를 미리 알게 된 모세는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 수 차례 자신의 자격 미달을 말하던 모세는 하나님의 강권 때문에 이집트로 돌아왔다. 그의 사역은 순탄하지 않은 순종의 길이었다. 바로의 협박 앞에 모세는 흔들렸을 것이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바로와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한없이 답답했을 것이다. 이런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을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지난날의 고생과 실망을 잊고 남은 사역에 매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둘째,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된다. 교만과 완악함으로 하나님과 흥정하려던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재앙을 겪으며 바로는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된다. 당대 최고의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하는 것은 쉽지 않았으나, 이 과정에서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모든 소유물과 노예생활의 품삯까지 챙겨서 떠날 수 있게 됐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노고를 보시고, 그 수고의 대가를 아주 정당하게 보상하신다는 청사진을 보여주신다.

셋째, 필요한 준비를 갖추게 된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담대히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었다.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유월절 양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새로운 사역이 곧 시작된 것이다. 결과를 미리 알고 준비하여 실행하기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차분히 준비해 담대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도 이런 동행의 은혜를 누리다. 한 치 앞을 모르며 삶을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놀라고 당황할 때, 그리스도인은 평안을 누리며 담대할 수 있다. 잠시 놀라거나 당황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평안을 회복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세상을 분별하며 살 수 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예레미야 33:3)." 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모든 불확실과 불안을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범사에 감사하자.

말씀적응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삶과 신앙

자꾸 두렵고 불안해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셨다.

긍정적인 감정은 인정하고, 부정적인 감정은 무시해버리면
결국 육체와 영혼 전체에 병이 난다.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돌아보고 인정해줘야 한다.

‘아, 그랬구나!
상황이 이러해서 내가 화가 나는구나,
슬프구나, 두렵구나, 우울하구나....’

늘 긍정적인 감정만 가질 순 없다.
삶은 다채로우니까!

스스로 나의 감정을 존중해줘야
다른 이의 감정도 돌봐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가진 그 마음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느끼는 감정인 거다.
그냥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 들고 나가자!

“하나님!!!
저 너무 서러워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잘 안돼서 속상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일조차 자신이 없고 두려워요!!!
하나님, 제 감정이 지금 이러해요....

하나님 듣고 계시죠....
제 상한 마음을 만져주세요.

제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최세미, 『젠틸위스퍼_최세미』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2:30 PM

주일성경공부 / SUNDAY BIBLE STUDIES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7:3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2: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